

조우진 “허세와 낭만 사이 ‘잔망미’로 진정성 파고 들었죠”

영화 ‘도굴’ 존스 박사 역... ‘아재미’ 장차
“웃기려고 걱정하는 코믹 연기 이번 처음”

고위 공무원 역을 단골로 맡았던 배우 조우진이 양복을 벗었다. 대신 잔망스러운 아재미를 장착했다. 영화 ‘도굴’을 통해 코믹 연기에 연기 변신에 나선 조우진을 30일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도굴’은 흙 맛만 봐도 보물을 찾아내는 타고난 천재 도굴꾼 강동구(이제훈)가 고분벽화 도굴 전문가 존스 박사(조우진), 전설의 삼철 달인 삼다리(임원희)와 한 팀을 이뤄 땅 속에 숨어있는 유물을 파헤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케이퍼 무비(범죄 모의·실행)의 형식에 철저한 상업영화적 재미를 추구한다. 조우진은 자칭 한국의 ‘인디애나 존스’로 고군 벽화 도굴 전문가 ‘존스 박사’를 연기했다. 마음만 먹으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통째로 옮긴다며 큰소리 칠 정도로 허세가 일상인 캐릭터다. 그는 ‘존스 박사’ 캐릭터에 대해 “시나리오 자체에 카워드로 ‘허세’와 ‘낭만’이 있었다”며 “과하지 않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기를 연구했는데 딱 떠오르는 게 ‘아재미’와 ‘잔망미’였다”고 말하며 웃었다. 이어 “정장을 오랜만에 벗다 보니 흑시나 출렁대거나 과장되게 보이면 안 된다고 생

각했다”며 “진정성 하나만 가지고 파고 든다면 미소는 자야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웃기려고 걱정하는 코믹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드라마 ‘도깨비’의 김비서 역으로 유쾌한 에너지를 선사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재미를 안겨야 하는 역할이라 부담감이 컸다고 한다. “누군가를 웃기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관찰과 흥내내기로 시작한 연기 같아요. 도깨비에서는 웃길려고 하지 않고 진지하게 연기했어요. 미스터 션샤인도 너스레를 떠는 캐릭터이기는 하지만 재밌게 해야지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았죠.” 조우진은 영화 ‘봉오동 전투’의 마적출신 독립군, ‘국가부도의 날’의 재정국 차관, ‘내부자들’의 조상무 등 무게감 있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개인적으로도 연기 변신이 절실했다는 그는 “이번 캐릭터가 연기 인생에서 넘어야 하는 하나의 산이었”고 기억했다. “감정이 가장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코미디 연기하면서 다시 느꼈어요. 희극과 비극의 경지를 넘나들고 싶은데 양 극의 끝

을 경험하고 좋은 반응을 얻어야 더 다양한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둡고 센 역할과 작품을 선호하는 면도 있는데 좋은 배우로 거듭나려면 취향에 상관없이 여러 인물을 그려야 하잖아요. 다양한 작품과 인물을 접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을 연구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오락 영화만큼 애드리브도 많았다고. 조우진은 “감독님과 상의해서 만든 것들이 제법 많다”며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인디애나 존스 모자를 쓰는데 그건 미리 모자를 준비해 달라고 미술팀에 요청을 했어요. 뭘가 태세 전환을 하게 되는 순간인데 말이 아닌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았고, 그의 정체성이 처음 드러나는 모습하기에 대사만 하는 것 보다는 모자를 쓰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았죠.” 조우진은 ‘도굴’에 이어 12월 개봉을 앞둔 ‘서복’까지 잇따라 2편을 선보인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출연작 개봉이 몰렸지만 감사할 따름이다. “이런 시국에 한 달 간격으로 출연영화를 두 편이나 개봉하게 되다니 정말 감사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관객들이 얼마나 들지 모르는데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두 작품의 결이 다르고 캐릭터가 상반된 지점에 있다는 것이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인데 계속 영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SM 신인 걸그룹 ‘에스파’, 4인4색 첫 단체컷 공개

윈터·카리나·닝닝·지젤

SM엔터테인먼트가 신인 걸그룹 ‘에스파(aespa)’의 4인4색 첫 단체컷을 공개했다. SM은 지난달 31일 오전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윈터, 카리나, 닝닝, 지젤이 함께 있는 사진들을 게재했다. 에스파는 ‘아바타 X 익스피리언스’를 표현한 ‘æ’와 양면이라는 뜻의 영단어 ‘에스펙트(aspect)’를 결합해 만든 이름이다.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된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SM은 각 멤버들의 사진을 개별적으로 올리며 팀 퍼우기에 나선 바 있다. 첫 번째로 공개된 윈터는 올해 나이 만 19세의 한국인 멤버로, 뛰어난 보컬과 댄스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공개된 카리나는 올해 만 20세의 한국인 멤버로 보컬뿐만 아니라 랩, 댄스 등 다재다능한 매력을 지녔다. 세 번째 공개 멤버인 닝닝은 올해 만 18세의 중국인 멤버로 탁월한 가창력을 지니고 있다.



네 번째로 공개된 지젤은 올해 만 20세로 탄탄한 랩 실력을 가진 일본인 멤버로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유창한 언어 실력을 지니고 있다. SM이 신인 걸그룹을 선보이는 건 2014년 데뷔한 ‘레드벨벳’ 이후 6년 만이다. 그간 SM은 S.E.S, 소녀시대, 에프엑스(f(x)) 등 개성 강한 K팝 걸그룹들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론칭해왔다.

고 김현식 30주기 1집~6집까지 LP등 미공개 유품 공개

제작사, 2020년 리메이크 앨범 ‘추억 만들기’ 발매



고(故) 김현식의 미공개 유품이 올해 30주기를 맞아 처음으로 공개됐다. 제작사 슈퍼맨C&M가 1일 고 김현식 30주기를 맞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공개 유품 사진들을 게재했다. 제작사 “고 김현식의 30주기를 맞아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는 팬들을 위해 그동안 한 번도 선보인 적이 없었던 유품을 공개했다”며 “고 김현식의 삶과 음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오랫동안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정규 1집부터 6집까지의 LP, CD, 테이프부터 골든디스크 대상 트로피, 한국뮤직박스 대상 트로피, ‘비오는 날 수채화’ ‘이무 말도 하지 말아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악보, 공연 연주 악보 노트 등이 담겼다.

빼곡하게 적힌 악보 습자들과 주옥같은 명반들은 고인의 열정적 음악 인생을 보여준다. 사진에는 졸업앨범, 가족사진, 하모니카, 아들과 찍은 사진, 가수 및 뮤지션 동료들과 찍은 사진, 이력서 바다여행 사진, 나의 고백 인터뷰 친필 사인 등도 담겼다. 제작사는 올해 고 김현식의 30주기를 맞아 2020년 리메이크 앨범 ‘추억 만들기’를 발매한다.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고인의 명곡이 현대적이고 젊은 감각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이번 앨범을 위해 10여 팀이 넘는 짝꿍 놀라만 한 실력과 후배 가수들이 합류했다. 히트메이커 작곡팀 ‘이단옆차기’를 비롯한 다수 작곡팀이 각 곡의 프로듀싱에 참여해 앨범 완성도를 더 높였다는 후문이다. 앨범 ‘추억 만들기’의 구체적인 앨범 발매 시기 및 참여 아티스트 라인업은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임영웅, 오는 4일 신곡 ‘히어로’ 발매

7개월만 신곡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이제 나만 믿어요’ 이후 7개월 만에 신곡으로 돌아온다. 임영웅은 지난달 31일 뉴에라프로젝트 공식 SNS를 통해 신곡 커밍순 이미지를 공개, 다음달 4일 새 싱글 ‘히어로(HERO)’ 발매 소식을 전했다. 공개된 이미지에는 율블랙 패션에 부드러운 남성미가 물씬 느껴지는 임영웅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히어로’는 자동차 광고에 삽입된 음원으로, 팬들로부터 정식 음원 발매 요청이 쇄도한 바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진으로 선정된 임영웅은 방송 중영 이후 공연, 예능 프로그램,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무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임영웅이 발표한 ‘이제 나만 믿어요’는 발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임영웅의 새 싱글 ‘히어로’ 음원과 뮤직비디오는 오는 4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안녕 제임스 본드’ 손 코너리 별세

첩보영화 ‘007’에서 1대 제임스 본드를 연기한 영국 영화배우 손 코너리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향년 90세로 사망했다고 유족이 밝혔다. 영국 BBC에 따르면 코너리의 아들은 이날 “부친이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부친은 영연방 국가인 바하마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말했다. 코너리가 숨질 당시 많은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도 했다.

코너리의 아들은 “부친을 알고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 오늘은 슬픈 날”이라면서 “배우로서 그가 준 멋진 선물을 즐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애도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코너리는 1962년 ‘007’ 시리즈 첫 작품인 ‘007 살인번호(원제 DR. No)’에서 제임스 본드를 연기했다. 코너리는 1983년까지 6차례 제임스 본드를 연기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고의 제임스 본드라는 평가를 받았다.

트와이스 측 “허위사실 유포 고소·고발할 것”

“민사조치도 곧 진행 예정”

그룹 트와이스 측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 등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특성 및 수위의 심각성에 따라 허위 사실에 따른 직, 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해 민사 조치 또한 곧 이어서 진행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여러차례 안내한 바와 같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작성은 물론, 무분별한 게재 및 유포 또한 법적 조치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